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오며

“주님께 감사하라 높은 데 계신 우리 하느님을 찬양하여라”



과연 저희는 아버지의 사랑을 보고 경험했습니다. “예,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을 우리는 압니다!” 어린 시절부터 저희는 특별하고 독특한 방법으로 하느님께 감사하고자 하는 깊은 소망을 키우며 살아왔습니다. 성장하면서 “내게 베푸신 모든 은총을 주님께 내가 무엇으로 갚으리이까?”라는 시편 저자와 함께 기도하며 식별했습니다. 저희는 수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 좋으신 하느님께 깊고 진실한 감사를 표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깊이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수녀님들, 공적으로 청빈, 정결, 순명의 서원을 발하면서 평생 동안 하느님께 “예”라고 대답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카드, 이메일, 전화, 와츠앱 메시지, 선물을 통해 기도와 따뜻한 축하, 소원과 격려의 말씀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양성 속에서 진정한 일치로 나타내며, 저희들 서원의 날을 은총으로 가득 차고 기억에 남는 다채로운 날로 만들어 줍니다.

수녀회의 영구한 회원으로 저희를 받아주신 총장 메리 앤 수녀님과 관구장 메리 앨리스 수녀님께도 감사드립니다. 헌신과 사랑으로 저희를 양성해주신 모든 양성 지도 수녀님들, 분원 책임자들, 교사들에게 빛을 지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하느님과 그분의 백성을 섬기며 사랑, 기쁨, 용기, 열정 속에서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수녀님들의 기도와 지원에 의지합니다.

메리 헬렌 수녀, SND